

# 담양 메타프로방스 정상화 ‘척척산중’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담양 메타프로방스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담양군은 3개월 안으로 재인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신뢰도 추락은 둘째치고라도 소송 당사자, 사유지를 수용당했던 지주(地主)들 공사 중단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 공익성 훼손에 대한 책임론 등은 풀어야 할 실타래들이다.

12일 담양군과 토지소유자 강모씨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남 강제와 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실시 계획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등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에도 59%에 불과했고,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갬은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대한 하자과 명백한 잘못으로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이 모두 무효"라는 판단이다. 행정적 하자나 경미한 잘못에 따른 '취소'가 아닌 '무효'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사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한 셈이다.

사업이 추진 4년만에 중대 위기에 놓였지만 담양군은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다"며 조기 정상화 입장을 밝혔다.

최형식 군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 폐소에 대비해 행정절차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 이미 3분의 2 토지수용 요건을 갖췄다.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 인가처분,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뒤 3개월 안에 실시계획 인가처분까지 마지면 사업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료 목표하고 있다"며 "보완할 사항은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당장 원고 측인 강씨와 박씨가 메타프로방스 사업지구 내에 3300~5600㎡의 사유지를 수용당한 상태에서 토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일부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들 이외에도 4명의 지주들이 노른자위 땅을 강제 수용 당해, 반

## 원고 등 강제수용 땅주인 6명 반환요구시 골머리 땅값 토지수용 때 보다 수십배 올라 협상 걸림돌 2단계 계획건물 중 절반 미완공, 조폭개입설까지

한 요구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해당 토지들은 수용 당시에는 3.3㎡당 10만원대, 도로변 등 소위 '복 좋은' 자리는 30~40만원에 수용됐으나, 현재는 3.3㎡당 싸게는 100만원대, 비싼 곳은 300만~7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보상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공사 중단도 불가피하다.

문제가 된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13만4000㎡, 총사업비 587억원)의 경우 권선과 상가 등 104개동 가운데 56개동(53.8%)만 준공됐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어서 미

완공 상태로 장기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취된 행정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유원지를 만들겠다'며 토지수용까지 했음에도 정작 수익사업에만 몰입하고 공공투자는 포기하는가 하면 대법원의 가져본 결정 뒤에도 공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은 "유원지 개발'로 포장해 농지를 할값에 사들인 뒤 실제로는 공익사업이나 자연환경 보전, 도시환경 미화보다는 사익에 치중

해 식당,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수익형 사업을 펼쳐 개발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며 "제왕적 단체장, 불도저식 행정도 이번 사태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단계 사업 중 공익성 시설로 당초 건립할 예정이었던 컨벤션센터 등이 중간에 계획변경을 통해 '없던 일'이 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광주와 담양지역 조지폭력배 개입설, 전남도의 허술한 토지수용 심의 등도 메타프로방스 사태와 맞물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담양군의 조기 정상화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 산적한 장애물로 인해 장기전에 걸려 차질을 빚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집중호우에 밀려온 쓰레기 12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에서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와 부유물을 수자원본부와 팔당수력발전소 직원들이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 ‘직원에 폭언’ 광산구의회, 의원 갑질 근절 대책 마련

광주의 한 기초의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무원 노조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광주 광산구의회와 광산구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의원 사무원(공무직)의 가족이 지난 11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폭언을 한 의원의 공개 사과, 보직 변경(전보 조치), 징계 절차 검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어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오후 5시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의원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조는 구의원 15명이 직권 남용과 갑질 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공직자 상대 설문(전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구의회도 오는 13일 오전 10시께 의정단 회의를 갖고 직권 남용 실태 조사,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을 논의한다.

광산구도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보직 변경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낮 12시10분께 광산구의회 A의원은 대다수 직원들이 점심시간 자신의 식사를 챙기지 않고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공무직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공무직 직원과 팀장을 불러 1시간 가량의 원원 보좌와 관련된 면담을 했다.

면담을 마치고 의원실을 나서던 공무직 직원들은 탈진 증세로 쓰러

져 병원 치료 중이다.

해당 의원은 A의원의 막말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건건 회부요건은 '재직의원 5분의 1 이상 징계 요구 서명 동의', '의장이 본회의 보고 뒤 회부', '상임위원장의 의장 보고 뒤 회부' 등이 있다.

조승우 광산구의회 의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의원과 공무원 간 수평적 관계를 만들겠다. 워크숍, 교육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 전국 다방 돌며 금품 훔친 40대 구속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전국을 돌며 영업이 끝난 다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심야시간에 논산에 있는 한 다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주인을 위협해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충북 지역 등을 돌며 다방 16곳에 들어가 28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발일하던 70대 여성 사냥개에 공격 당해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일을 하던 70대 여성이 사냥개 2마리에 공격 당했다.

1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경 의정부시 낙양동에서 정모(77여)씨가 사냥개 2마리에 공격을 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씨를 공격한 뒤 산으로 달아났다. 정씨는 산에서 내려온 사냥개들을 발견해 1마리는 사살했지만 나머지 1마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 사냥개에게 물린 정씨는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크게 놀라 인근 병원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달아난 사냥개를 쫓는 한편 사냥개 소유주를 찾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

## 웃차림 지적 고시텔 총무 흥기로 찌른 40대

평소 웃차림 등을 지적하던 고시텔 총무를 흥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조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시7분경 광명시의 자신이 사는 고시텔 앞에서 총무 A(69)씨의 가슴 부위를 흥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조씨가 술을 마신 뒤 상의를 벗고 고시텔을 돌아다니다 이를 지적했고, 말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조씨가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시텔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평소 조씨의 상의 탈의 등을 지적한 것이 갈등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 애인에 흥기 휘두른 30대 구속

지난 8일 대구에서 전 애인과 친구에게 흥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30대 마다툼 중 화가 나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7월9일 뉴시스 참조)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28분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 원고계시장 인근에서 전 애인인 B(22·여)씨와 B씨의 지인 C(22)씨에게 흥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B씨는 가슴에, C씨는 어깨와 팔 등에 각각 부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11시간여 만인 9일 오전 9시 25분경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우연히 길을 가던 중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C씨에게 '왜 같이 있느냐'며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중 화가 난 A씨는 B씨와 C씨에게 흥기를 휘둘렀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흥기는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 애인인 B씨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흥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흥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닌 평소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광산구